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서 걷기로 치유하세요”

내달 6일부터 16일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최 범바위 기 치유·별별 버스·줍깅 챌린지 등 다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힐링할 수 있는 걷기 축제가 열린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4월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산 완보 스탬프 투어 ▲범바위 기(氣) 치유 ▲별별 버스 ▲별이 빛나는 청산도 ▲청산도 이색 걷기 대회(슬로우 걸러런) ▲줍깅 챌린지 등이다.

'청산 완보 스탬프 투어'는 슬로길 4개 코스 이상을 걷고 스탬프를 찍으면 청산도 특산품을 제공한다.

'범바위 기(氣) 치유'는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고도 불리는 청산도의 명산 보석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기 체조를 하며 기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별이 빛나는 청산도'는 은하수 사진 촬영 후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별별 버스'는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청산도를 돌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별이 빛나는 청산도'와 '별별 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에 참가자를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오는 4월6일부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슬로걷기 축제 모습. <완도군 제공>

모집하며, '별별 버스'는 4월6일, 12일, 13일, 20일 등 총 4회 운영된다.

'청산도 이색 걷기 대회'는 4월13일과 20일, 2회 진행되며 1회 5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줍깅 챌린지'는 친환경 봉투를 배부해주고 슬로길 투어 후 쓰레기를 담아 오면 청산도 특산품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연서를 쓰면 1년 뒤 발송해 주는 '달팽이 엽서 보내기', '유채꽃 버스킹', 특산물 판매 장터와 다양한 전시·체험 등도 준비했다.

4월6일에는 나비를 날리는 '나비아,

청산가자'와 함께 공식 개막 행사가 열린다.

완도군에서는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고,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봄에는 유채꽃

향이 가득한 청산도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힐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 상인 '오렌지달팽이상'을 수상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추진 속도

'하우스캠핑장' 등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 완료로 '탄력'

함평군이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을 완료하면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돌머리 해수욕장 귀어귀촌빌리지를 '하우스캠핑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 민간 개방과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등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을 완료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지난해 9월5일 전남도와 공동 발표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세 개의 기둥 중 하나인 '해양생태축'에 해당하는 세부 추진사업이다.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캠핑장'은 어

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8개 주요사업 중 하나다. 10평형 숙박시설 8개 동으로 이뤄져 최근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돌머리 하우스캠핑장은 물론, 함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해양 관광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 해양생태축의 큰 줄기인 돌머리지구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이란 함평을 세로로 나눠 서해바다 및 연안은 해양생태축, 북쪽 산악지역과 함평천으로 이어지는 중앙부는 산악녹지축, 광주와 인접한 동부권은 미래성장축으로 설정해 앞선 3개의 축을 따라 군 전체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총 1조8천600억원 규모의 함평군 종합발전 공간개발 계획이다.

최근 마무리 단계인 함평추억공작소 황금박쥐상 이전 사업은 '산악녹지축' 발전계획에 속하며,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생태축' 일부에 속해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



‘2024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지난 23일 송지면 미항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씨앗 비행기 날리기 프로그램. <해남군 제공>

“땅끝 해남 봄 활짝”...달마고도 힐링축제 ‘성료’

전국서 걷기 여행객 모여남도 명품길 걷기

해남군은 26일 "지난 23일 송지면 미항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4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를 주제로 봄의 숲길에서 걷기와 여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걷기 축제로 마련됐다. 축제는 축하공연을 비롯한 개막식,

소원 나무심기, 숲속 버스킹 등이 걷기 길 곳곳에 마련돼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과 트레킹족들을 반겼다.

또한 노르딕워킹, 다도, 명상, 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해남 특산물 판매하는 달마장터, 다채로운 공연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이날 축제에는 남파랑길의 시작점인

부산에서도 달마고도를 걷기 위해 500여명의 걷기 동호인들이 방문해 남도 명품 길의 진면목을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전국의 걷기 여행객들이 찾아왔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를 선보여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 해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백영희 기자>

목포청년100인포럼 “전남권 의대 목포대 설치 요구”

목포청년100인포럼이 26일 "전남권 의대는 반드시 목포대에 설치돼야 함을 22만 목포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남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목포청년100인포럼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결정을 선행하면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의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대 설치 계획은 도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통합 의대신설을 이뤄내더라도 결국 대학병원을 어디에 설립해야하는 문제로 지역이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목포 정치권은 단호하게 목포대 의대 설치를 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치 김영록 지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시민들은 지역이 툭툭 뭉쳐있는순천으로 빼앗

기지않을까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과거 의대 신설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목포대가 후발 주자였던 순천대에 정원의 절반을 빼앗겼던 것을 상기하면 이번 의대 또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지역 정치권이 전남권 의대 말고 목포대 의대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돌단풍·만병초...영암서 야생화 400점 전시

내일부터 나흘간 목재문화체험장서

영암군은 26일 "도시농업연구회가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전국야생화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국야생화전시회는 한국 고유의 정취가 담긴 우리꽃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에선 목재문화체험장의

고풍스런 회랑을 따라 돌단풍, 할미꽃, 앵초, 만병초 등 도시농업연구회원 출품작 50점이 전시된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양지꽃, 부처손, 붓꽃, 패랭이, 바위솔 등 야생화 350점도 함께 방문객을 맞는다.

최경열 도시농업연구회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지나쳐 온 야생화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아름답게 연출했다"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야생화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 공무원 육아시간 혜택 8세까지 확대

郡, 복무조례 개정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존 5세 이하 자녀만 해당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

지도 시간)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해 오전 9시30분 출근, 오후 4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

격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박우량 군수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군,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취약계층 대상 1대당 60만원

무안군은 26일 "대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도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으로 소재 주택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제임자다. 설치 전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각 가정의 구조나 설치 여건을 접수 전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1대당 60만원, 총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무안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